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 대학졸업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신희천 · 장재윤 · 이지영

이 연구는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들의 실업 및 취업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노출가설)과 구직자의 정신건강이 실업 및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선택가설)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으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졸업을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정신건강과 실업 및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 국내 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약 6개월 간격으로 2차 조사, 3차 및 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시점에서 모두 정신건강을 우울·불안 차원과 부적응 차원으로 측정하였고, 취업시기 이전인 1차 조사를 제외한 2, 3, 4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과 정신건강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가정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매우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과 실업을 교호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경로분석적으로 확인한 결과 선택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직초기의 스트레스는 추후의 실업여부와 정신건강 모두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청년실업, 정신건강, 종단연구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심리학). hcshin@ajou.ac.kr (교신저자)  
**장재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심리학). jaeyoonc@sungshin.ac.kr  
**이지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심리학). joyce@hanmail.net

## 1. 이론적 배경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회복되었으나 청년실업률은 7.5%로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준비자 60만 7천 명과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162만 8천명을 합하면, 이른바 '사실상 백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통계청, 2008). 이에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청년고용 장려금 운영, 취약청년층 고용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취업준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살, 범죄율의 증가,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부정적 정서와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커다란 생애사건이다. 또한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실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가 또다시 실업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일련의 삶의 경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실업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실업기간 동안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 여부는 다시금 추후 취업과정과 실업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쇄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실시된 종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실업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연쇄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횡단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단자료의 분석이 요구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이 연구는 변인들 간의 시간에 걸친 인과관계의 규명과 상호영향력의 비교분석에 효과적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홍세희, 유숙경, 2004)을 적용하여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네 시점에서 실업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장재운, 장은영, 및 신희천(2006)의 후속 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대졸자의 취업여부와 정신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종단자료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 1)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실업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가 많이 있다(Taris, 2002). 일찍이 실업 및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던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는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와 그것에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은 자존감을 낮추고(Prause & Dooley, 1997),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일으키며(Axelsson & Ejlertsson, 2002; Cantalano, Aldrete, Vega, Kolody, & Aguilar-Gaxiola, 2000; Hammarstrom & Janlert, 1997),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저하시키고(Brief, Konovsky, Goodwin, & Link, 1995; Creed & Macintyre, 2001),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에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man, O'Malley, & Johnston, 1978; Banks & Jackson, 1982; Fryer, 1997; Gurney, 1980; Harman, O'Riain, & Whelan, 1997; Patton & Noller, 1984; Schaufeli, 1997;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이 외에도 청년실업은 알콜사용(Abma, 1991; Dooley & Prause, 1998; Hammarstrom, Janlert, & Winefield, 2002) 및 약물남용(Atkinson, Montoya, Whitsett, Bell, & Nagy, 2003; Baron & Hartnagel, 1998; Hammarstrom et al., 2002; Kandel, 1980) 등과 같은 자기패배적인 행동과 음주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장기간 실업은 노동시장 진입의 배제, 사회적 고립, 경제적 배제 등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고착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Kieselbach, 2003).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의 내용은 대부분 취업상태의 청년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의 심리적 및 행동적 문제 수준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보면, 실업의 경험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역의 방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본래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구직자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실업상태에 놓이더라도 새롭게 직장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 이들이 지닌 심리적 취약성과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취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Taris, Heesink, & Feij, 1995). Winefield(1997)는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가설을 각기 '노출가설'과 '선택가설'로 명명하여 정리한 바 있다. 즉,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이라는 설명은 노출가설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대로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한다는 설명은 선택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 2) 실업과 정신건강 인과관계의 쟁점: 정신건강은 실업에 노출된 결과인가, 원인인가?

특정한 시점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게 되면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정신건강이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횡단연구를 통해서서는 두 가지 경쟁가설인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검증하기 불가능하며, 종단연구를 통해서만 이 두 가설 중 어떤 가설이 지지되는지 혹은 두 가설이 모두 부분적으로 지지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장재윤 외, 2004b). 그런데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은 각기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종단연구로

부터 지지받고 있다. 먼저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에서는 실업경험 이전의 기저단계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집단과 실업집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시점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서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취업 상태의 청년보다 실업 상태의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Bachman et al., 1978; Banks & Jackson, 1982; Gurney, 1980; Patton & Noller, 1984; Winefield et al., 1993). 예를 들면, 아일랜드 청년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5년 간격으로 고용상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Hannan, O'Riain, 및 Whelan(1997)의 연구에서는, 기저수준에 해당되는 1982년 당시의 정신건강을 통제된 뒤에도 실업상태 청년의 정신건강이 취업상태 청년의 정신건강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청년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7년 간격으로 고용상태와 자존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Prause와 Dooley(1997)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에 측정한 초기 자존감 수준을 통제된 후에도 고용상태는 7년 후의 자존감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택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Hoare와 Machin(2004)의 중단연구에 따르면,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취업 상태의 사람들보다 본래 자존심이 낮았거나 부정적인 정서가 더 높았다. 또한 Taris, Bok 및 Calje(1998)의 중단연구 결과, 우울한 사람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기를 더 어려워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더라도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지위와 같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모두 지지된 중단연구도 있다. Hammarstrom과 Janlert(1997)는 스웨덴에서 5년 간격으로 우울증상과 실업상태를 조사한 자료에서 5년 후에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집단이 고용집단에 비해 초기 우울증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는 초기 우울 증상을 통제하여도 실업

집단의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출가설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tterson(1997)의 연구를 보면, 2차 시점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1차 및 2차 시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나쁘게 유지되었지만, 2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2차 시점에서 1차 시점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업 상태의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1차 시점에서보다 취업 상태의 청년보다 본래 유의하게 더 나빠서 선택가설도 지지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그리고 한지현(2004b)은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 걸쳐서 대학졸업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2차 시점과 3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취업 집단은 1차 및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도 미취업 집단이 취업한 집단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출가설을 지지한다. 다만 정신건강을 우울·불안과 부적응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을 때, 우울·불안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선택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남성의 경우에 다른 두 집단보다 미취업 집단에서 초기 시점에서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를 4차 시점으로 확장한 장재윤, 장은영 그리고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노출효과를 취업성공에 따른 긍정적 노출과 취업실패에 따른 부정적 노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는 취업성공 노출효과와 취업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증가한 취업실패 노출효과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 장재윤 외(2004b)의 선행연구를 보다 장기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효과와 선택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노출효과가 취업성공에서 비롯되는가 혹은 실패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노출효과와 원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중단연구들은 선택가설과 노출가설 모두를 지지하는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므로, 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는 어째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일까? 지난 수 십 년 동안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수많은 연구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Dooley(2003)는 세 가지 이유로 답하고 있다. 첫째,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인과방향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매개하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둘째, 연구설계 상의 문제로, 연구의 속성상 실험연구 설계가 불가능하기에 많은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관관계에 기초한 조사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실업을 줄이고 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반대로 정신건강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된다면 정부로서는 실업이 개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신,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과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적 관련성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혼재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명료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Fryer와 Fagan(2003)은 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업집단과 고용상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한 고용집단 간의 평균적인 정신건강을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의 반복 검증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짝지어진(matched)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적절히 설계된 중단연구가 상당 수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3)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종단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Dooley, 2003). 첫 번째 유형은 직장 폐쇄가 미리 예고된 경우에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된 사람들과 실직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연구이다(예를 들면, Cobb & Kasl, 1977). 두 번째 유형은 아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그들을 추적하면서 구직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장재윤·장은영·신희천, 2006;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마지막 유형은 일반 표본에 대한 기존의 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 면접을 통해 취업집단과 실업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Dooley, Catalano, & Hough, 1992).

청년실업에 관한 종단연구는 대부분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만, 장재윤, 장은영, 및 신희천(2006)이 지적한 것처럼, 청년실업에 관한 기존의 종단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실업 상태의 지속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의 경우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취업 시점이 끝난 시기,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시기에 따라 각각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Schaufeli(1997)는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점점 더 나빠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종단연구들에서는 두 시점(1차 시점과 2차 시점)간의 비교에만 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취업 시점이 존재하고 대학졸업을 전후로 하여 취업의 성패가 사실상 결정되는 환경에서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졸업을 전후로 하여 좀 더 여러 시점에 걸쳐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의 종단연구가 지니는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교호적인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걸쳐 연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실업은 부정적 정서와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생애사건이다. 부정적인 생애사건의 경험은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추후 구직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직 효능감(efficacy), 적극적인 직업탐색 행동(job search behavior), 구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손상시켜 실업 경험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가 또다시 실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본래 정신건강이 취약하여 구직에 실패하였을 경우, 이러한 실업 경험이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하여 다시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각기 지지하는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되는 것은,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이러한 상호영향을 시사해준다.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실업이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실업기간 동안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 수준은 다시금 추후 구직과정과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호적인 연쇄과정(reciprocal sequence proces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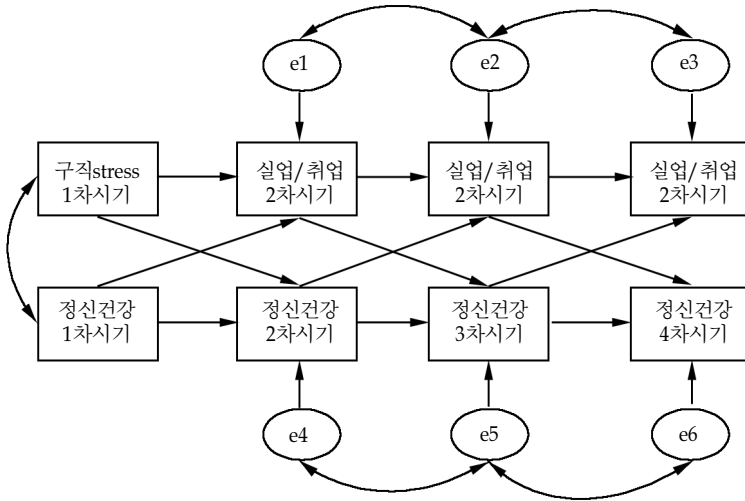
한편,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특정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정신건강이 구직여부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영향력의 강도가 변화할 수 있다. 기존의 종단연구 설계로는 시간의 흐름에 걸친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명하고,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인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시간의 흐름에 걸쳐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연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multi-wave의 종단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시간에 걸친 인과관계의 규명과 교호적인 상호영향력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대졸자의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측정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으로,  $t$ 시점의 값이  $t-1$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 지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과 두 변인간의 상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교차지연모형(Crosslagged Model)이 결합된 모형이다.

#### 4) 취업전 구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그리고 실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기저수준에서 측정된 초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대졸 예정자의 경우, 상당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및 장해미(2004)의 연구에서 대학졸업예정자를 면담 조사한 결과, 최근 들어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재학 중 구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구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며, 또한 초기 구직 스트레스가 추후 취업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가설(노출가설 vs. 선택가설)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상호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걸쳐 달라지는지를 동일화 제약 검증을 통해 종단적으로 분석한다(노출가설의 종단분석). 셋째, 정신건강이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동일화 제약 검증을 통해 종단적으로 분석한다(선택가설의 종단분석). 마지막으로,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경로도는 다음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청년실업/취업과 정신건강의 종단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 2. 연구 방법

### 1) 취업전 구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그리고 실업

이 연구는 장재윤, 장은영, 및 신희천(2006)에서 사용한 종단자료를 재분석한 것으로 조사시기, 대상, 방법이 동일하다. 종단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의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4회에 걸친 종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4회에 걸친 종단적 조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졸업예정자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구직과정에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5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전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구직활동이

왕성해지는 동년 11월 중에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3차 조사는 1차 조사 당시에 졸업예정자였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에 적응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2004년 5월에 실시되었다. 또한 보다 장기간의 실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차 조사에 이어 4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4차 조사는 3차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구직활동을 시작했던 시점인 2차 조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이며, 미취업자인 경우 실업이 장기간 지속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요원의 설문조사와 온라인상의 설문조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표본수 내에서 각 학교별로 표집인원을 배분한 후 계열별 및 남녀별 비율에 따라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하였다. 지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하여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96명~144명씩 표집하여 총 2,74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최종 2,542명의 응답이 1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 자료로 분류되었다.

2차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메일 주소로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전송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01명의 응답이 2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 자료로 분류되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1차 참여자에게 사전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품권 1만원권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어서 참여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머지 실시 방법도 2차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84명의 응답이 3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 자료로 분류되었다(이 자료에는 대학원 진학자 등도 포함됨).

4차 조사도 1차 조사 때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674명에게 4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다만 이 1,674명에게 메일을 발송한 후, 설문문의 맨 처음 화면에서 현재 응답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4차에 걸쳐 모두 응답한 총 767명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로 분류되었다.

## 2) 질문지 및 사용된 척도

### 가. 일반정신건강 척도: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많은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측정치는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이다(Murphy & Athanasou, 1999). 원래 GHQ는 정신분열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만성정신질환의 유형을 찾아내거나 진단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다만 나쁜 건강상태의 원인이 되는 심리사회적 경험의 정도를 간단하게 측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GHQ는 여러 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신선인, 2001: 214-215), WHO에 의해 개발된 SRQ(Self Reporting Questionnaire)와 비교하여 정신질환의 사례를 찾아내는 데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Macy & Williams, 1985), SCL-90, BDI, CES-D등과 GHQ의 하위요인인 우울/불안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Goldberg & Williams, 1991). 이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 중 신현균과 장재윤(2003)이 사용한 단축형 KGHQ-12문항을 사용하였다. 신현균과 장재윤(2003)은 대학생 집단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하위요인인 우울·불안 요인 6문항, 사회부적응 요인 6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12문항짜리 GHQ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추출된 우울과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2요인 구조와 일치한다(Werneke, Goldberg, Yalcin, & Ustun, 2000). Goldberg는 최초 60문항에서 30문항,

28문항, 그리고 12문항으로 보다 간결한 척도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문항에서는 우울과 사회적 역기능(부적응)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였으며(Werneke et al., 2000), 이러한 12문항의 GHQ로도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screening)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하였다(Goldberg et al., 1997). 정신건강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1점은 '매우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고, 값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우울·불안, 사회부적응 및 총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최종 표집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4차 조사에서 얻은 척도의 신뢰도는 우울·불안의 경우에 네 시점의 순서대로  $a = .77$ ,  $a = .81$ ,  $a = .83$ ,  $a = .79$ 이었고, 사회부적응의 경우에는  $a = .81$ ,  $a = .83$ ,  $a = .82$ ,  $a = .84$ 이었다. 전체 12문항에서는  $a = .83$ ,  $a = .86$ ,  $a = .86$ ,  $a = .85$ 이었다.

특정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중다 문항을 가진 척도를 종단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성개념의 측정 불변성(measurement invariance)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Reise, Widaman & Pugh, 1993). 특히 척도에 포함된 개별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반복 측정에서 일관적인지가 관심사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저하는 구성개념의 의미에 변화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KGHQ-12 문항(이하 GHQ로 명명함)에 대한 측정 불변성 검증에서는 구성개념의 요인구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현·장재윤, 2005).

#### 나. 구직스트레스 척도:

구직스트레스는 장재윤 외(2004a)가 사용한 단일 문항으로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 다. 인구통계변인:

인구통계변인으로 자신의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다. 또한 매 조사 시점 마다 취업여부를 질문하여, 미취업은 0, 취업은 1로 코딩하였다.

### 3) 최종 분석 대상자의 특성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 76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구성부터 보면, 남성이 418명(54.5%), 여성이 345명(45.0%)이며, 4명(0.5%)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은 4차 조사 시점으로 21세부터 31세까지 분포하였고, 21세부터 29세까지가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연구의 1차 조사에서는 2,542명의 자료가 얻어졌지만, 4차 조사에서는 767명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1차 조사에 비해서 4차 조사에서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4차 조사까지 추적되지 못한 사람들이 4차 조사까지 참여한 사람들과 본래 기저선에서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4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767명(이후부터 '4차 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1,775명(이후부터 '4차 미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1차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부터 보면, 4차 미응답 집단(남, 57.5%, 여, 42.5%)과 4차 응답 집단(남, 54.8%, 여, 45.2%)에서 남녀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60$ , n.s.). 이외에 연령(4차 미응답 집단과 4차 응답 집단 순서대로,  $M = 24.69$ ,  $M = 24.64$ ,  $t = .36$ , n.s.)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4차 미응답 집단과 4차 응답 집단 순서대로, 우울·불안( $M = 8.20$ ,  $M = 8.20$ ,  $t = -.01$ , n.s.), 부적응( $M = 7.60$ ,  $M = 7.67$ ,  $t = .86$ , n.s.) 및 총점( $M = 15.81$ ,  $M = 15.87$ ,  $t = .32$ , n.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분석방법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은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측정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으로, 각각 동일한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autoregressive) 계수와 한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 지연(crosslagged) 계수를 AMOS 프로그램의 경로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TLI(Tur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이 두 지수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 뿐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한다는 잇점이 있다. 각 지수의 적합도 기준은 TL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는 .06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원래모형(기본모형)과 동일화 제약 모형간의  $\chi^2$ 차이검증 통해 검증하였다.

### 3. 결 과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가설(노출가설 vs. 선택가설)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 전체모형의 적합도와 취업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 내에서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걸쳐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 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분석하는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노출가설의 종단분석).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이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 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분석하는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선택가설의 종단분석).



먼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변인들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직 stress	2.96 (.61)	1											
2 우울불안 1차시기	2.37 (.52)	.291*	1										
3 우울불안 2차시기	2.39 (.54)	.252*	.453**	1									
4 우울불안 3차시기	2.41 (.55)	.204*	.450**	.511**	1								
5 우울불안 4차시기	2.34 (.53)	.218**	.388**	.465**	.605**	1							
6 부적응 1차시기	2.28 (.29)	.141**	.427**	.294**	.266**	.242**	1						
7 부적응 2차시기	2.14 (.45)	.156**	.324**	.505**	.358**	.298**	.473**	1					
8 부적응 3차시기	2.21 (.44)	.154**	.286**	.315**	.520**	.337**	.380**	.448**	1				
9 부적응 4차시기	2.18 (.45)	.126**	.217**	.294**	.393**	.493**	.337**	.424**	.495**	1			
10 실업/취업 2차시기	.22 (.41)	-.067	-.043	-.090*	-.035	-.064	-.057	-.199**	-.064	-.108*	1		
11 실업/취업 3차시기	.16 (.37)	-.090*	-.003	-.117**	-.011	-.052	-.091*	-.217**	-.053	-.090*	.704**	1	
12 실업/취업 4차시기	.66 (.47)	-.032	-.055	-.041	-.140**	-.110**	-.082*	-.180**	-.128**	-.138**	.192**	.201**	1

\*  $p < .05$ , \*\*  $p < .0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경로모형 추정치는 <표 2>에 제시되었고, 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GHQ 점수 총점과 함께, GHQ의 하위 요인인 우울·불안과 부적응 각각에 대해서도 추정치와 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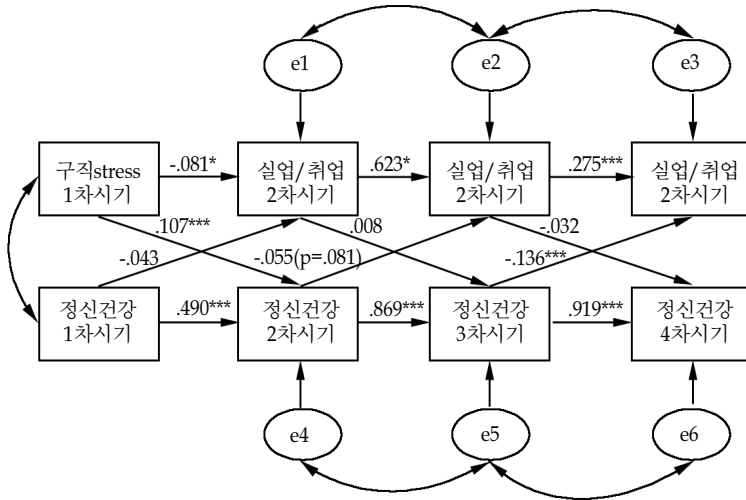
GHQ 총점을 정신건강의 측정변수로 사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chi^2(11) = 27.7$ ,  $p < .01$ , CFI = .987, TLI = .959, RMSEA = .044로 매우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가설을 종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전 조사시기의 실업(취업)경험이 다음 조사시기의 정신

&lt;표 2&gt; 자기회귀 교차시차분석 모형 추정치

모수		GHQ	표준화된 추정치 우울·불안	부적응
정신건강3차	← 취업2차	.008	.001	-.004
정신건강4차	← 취업3차	-.032	-.027	-.022
취업2차	← 정신건강1차	-.043	-.009	-.056
취업3차	← 정신건강2차	-.055	-.026	-.056
취업4차	← 정신건강3차	-.136***	-.123***	-.113***
취업2차	← 스트레스	-.081*	-.092*	-.080*
정신건강2차	← 스트레스	.107***	.114***	.111***
정신건강1차	↔ 스트레스	.280***	.292***	.141***
취업3차	← 취업2차	.623*	.808**	.927**
취업4차	← 취업3차	.275***	.278***	.284***
정신건강2차	← 정신건강1차	.490***	.425***	.450***
정신건강3차	← 정신건강2차	.869***	.926***	.799***
정신건강4차	← 정신건강3차	.919***	.931***	-.923***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2차에서 정신건강3차로 이어지는 경로와 취업3차에서 정신건강4차로 이어지는 경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_s = .008, -.032$ . 각각  $p > .05$ ). 반면, 선택가설을 종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전 조사시기의 정신건강이 다음 조사시기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1차에서 취업2차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beta = -.043, p < .05$ ) 정신건강 2차에서 취업3차로 이어지는 경로는 경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 = -.055, p = .081$ ), 정신건강3차에서 취업4차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6, p < .001$ ).

한편, 경로분석을 통해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그리고 취업여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기 구직 스트레스는 당시의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r = .280, p < .001$ ), 다음 시기의 정신건강( $\beta = .107, p < .001$ )과 취업여부( $\beta = -.081, p < .05$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전 시기의 취업과 이후 시기의 취업상태로 이어지는 경로( $\beta_s = .623, .275$ . 각각  $p < .001$ )와 이전 시기의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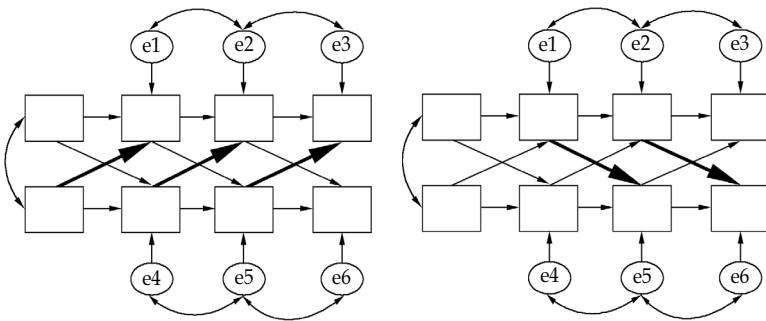
<그림 2> 실업/취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의 추정치

건강이 이후 시기의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경로 모두( $\beta_s = .490, .869, .919$ , 각각  $p < .001$ )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HQ의 하위 요인인 우울·불안과 부적응 각각에 대한 추정치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실업(취업)의 관련성이 구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노출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취업2차에서 정신건강3차로 이어지는 경로와 취업3차에서 정신건강4차로 이어지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노출효과 등가제약모형’을 비교모형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선택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정신건강1차에서 취업2차로 이어지는 경로, 정신건강 2차에서 취업3차로 이어지는 경로, 그리고 정신건강3차에서 취업4차로 이어지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선택효과 등가제약모형’을 또 다른 비교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림 3>에 비교모형의 그림을 제시하였고, <표 3>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기본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표 3> 비교모형의 적합도

		(N=767)	$\chi^2$	df	TLI	RMSEA
정신건강 (GHQ)	(1) 기본모형		27.7	11	.959	.044
	(2) 노출효과 등가제약모형		28.3	12	.963	.042
	(3) 선택효과 등가제약모형		31.8	13	.961	.043
정신건강 (우울·불안)	(1) 기본모형		16.9	11	.984	.026
	(2) 노출효과 등가제약모형		17.1	12	.987	.024
	(3) 선택효과 등가제약모형		21.0	13	.982	.028
정신건강 (부적응)	(1) 기본모형		38.3	11	.914	.057
	(2) 노출효과 등가제약모형		38.4	12	.923	.054
	(3) 선택효과 등가제약모형		40.8	13	.926	.053



<그림 3> 선택효과 등가제약 모형(좌)과 노출효과 등가제약 모형(우)

이 두 가지 비교모형의 적합도를 기본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출효과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chi^2 diff(1) = 0.6, p > .0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두

경로 간에는 노출효과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각 시점에 따른 노출효과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선택효과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chi^2_{diff}(2) = 4.1,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선택효과의 두 경로 간에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각 시점에 따른 선택효과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GHQ의 하위 요인인 우울·불안과 부적응 각각에 대한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4.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청년의 실업 및 취업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노출가설)과 구직자의 정신건강이 실업 및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선택가설)을 시간의 흐름에 걸쳐 살펴봄으로써,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오래된 쟁점(노출가설 대 선택가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장점을 지닌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로분석을 통해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검증한 결과, 선택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가설과 관련 있는 두 가지 경로인, 2차 조사시기의 실업 및 취업이 3차 조사시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3차 조사시기의 실업 및 취업이 4차시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수 많은 연구결과(Taris, 2002 외 다수)와 불일치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단순히 노출효과뿐 아니라 이전 시기의 취업상태와 정신건강 그리고 선택효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는 노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선택가설과 관련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살펴본 결과, 1차 조사시기의 정신건강은 2차시기의 실업 및 취업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차 조사시기의 정신건강은 3차 조사시기의 실업 및 취업에 경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3차 조사시기의 정신건강은 4차시기의 실업 및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구직자의 정신건강이 실업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택가설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결과(Hoare & Machin, 2004 외 다수)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단순히 선택효과뿐 아니라 이전 시기의 취업상태와 정신건강 그리고 노출효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선택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효과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경로분석의 결과를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걸쳐 노출효과와 선택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동일화 제약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노출가설과 선택가설 모두 시점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3차 조사 시기의 정신건강이 졸업 후 9개월이 지난 4차 조사 시기의 실업 및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대학졸업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대학졸업자들에게 졸업은 대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 사회인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성인실업자가 아닌 청년실업자들은 직업을 구해야 하는 과제 이외에도 학교-직장 이행(school-to-work)의 발달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Johoda(1981, 1982)는 박탈 이론(deprivation theory)에서 사회적 정체성 박탈이 실업자들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anks와 Evans(1989), 그리고 Hendry(1989) 등은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학교를 졸업한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증명함으로써, Johoda(1981, 1982)의 사회적 정체성 박탈이 미치는 영향이 성인실업자가 아닌 청년 실업자들에게 왜 더욱 심각한 것인지를 밝혀주었다. Winefield와 Tiggemann(1989)도 청년 실업자들은 경제적 박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보다는 기대에 대한 좌절(failure of expectation)이 청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청년들에게 기대에 대한 좌절은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Patterson, 1997).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달과제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박탈감은 다시금 실망실업으로 이어져 장기실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및 취업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는 동일 시점의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 조사시기의 정신건강과 취업 및 실업여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장재윤 외, 2004)에서 발견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실업과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실업 간의 연쇄적 인과관계와 초기 구직 스트레스를 가정한 전체 연구모형은 상당히 양호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의 구직 스트레스가 초기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은 추후 취업여부와 정신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다음 시기의 정신건강과 취업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정신건강과 실업 간의 관계를 교호적 연쇄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모두 존재한다는 Hammarstrom과 Janlert(1997)의 연구와 Patterson(1997)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Winefield(1997)가 노출가설과 선택가설로 정리한 바 있는,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청년(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가지 인과방향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연구는 수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각기 지지되고 있는 두 가지 가설을 하나의 모형에서 통합하여 검증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걸쳐 규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두 시점에 걸쳐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설계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걸친 상호 영향을 동시에 파악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Dooley(2003)가 언급했듯이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과학적인 방법론적 측면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이슈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할 때, 정신건강은 이전 시기의 실업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추후의 실업 및 취업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점에서 낮은 정신건강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구직자는 다음 시점에서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거나 사회적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취약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실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정책적 우선순위와 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정신건강에서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과 취업을 준비시키는 예방장치를 확대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신건강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직초기보다는 졸업 이후에 보다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Schaufeli(1997)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사회적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eselbach(2003)는 청년층의 장기간 실업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다시금 청년실업자의 취약성을 강화하여 실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과 취업의 일차적 지원 대상은 졸업 후 실업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청년들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의 장기화는 구직 자체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2008년 2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62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매년 2월을 기준으로, 일자리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은 2003년에는 97만7천명, 2005년 147만4천명, 2007년에는 158만9천명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으며, 5년 사이 증가율이 66.6%나 돼, 같은 기간 15살 이상 인구 증가율(6.0%)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환경이 크게 나빠지면서, 실업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한겨레, 2008, 3, 13). 따라서 이들 구직 포기자(단념자)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역시 조속히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종단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4차례에 걸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추적연구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후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 5년 간격으로 실시한 Hannan, O'Riain, 및 Whelan(1997)의 연구나 미국 청년을 대상으로 7년 간격으로 연구한 Prause와 Dooley(1997)의 연구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분화된 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졸 졸업자가 어렵게 구직에 성공하고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취업 상태의 확인을 위해서는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졸업을 전후한 결정적 시기에 한정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집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한 신현균과 장재운(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Goldberg 등(1997)이 개발한 GHQ-12문항을 사용하였다면 국외 선행연구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GHQ를 기초로 개발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나 PWI-SF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했다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절단점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우울·불안이나 부적응을 '임상적으로 유의한 점수(혹은 비정상 또는 이탈)'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실업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정신건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실업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예컨대 구직자의 직업탐색 행동이 강할수록 구직면접이나 입사제안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보다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정신건강이 낮은 수준에 있는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직업탐색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그만큼 충분한 구직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과 실업 사이에 놓인 다양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규명한다면, 앞서 언급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예방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장재운.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이태현·장재운. 2005. “종단적 조사자료 분석에서의 측정 불변성 검증: 청년실업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분석에의 적용.”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연세대학교 6월 17일.
- 장재운·신현균·김은정·신희천·하재룡·장해미. 2004a.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 장재운·장은영·김범성·노연희·이지영·한지현. 2004b.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장재운·장은영·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한국고용정보원. 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 보고서<<http://survey.keis.or.kr>>』 .
- 통계청. 2008. 『2008년 2월 고용동향』 .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유숙경. 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381-392.
- 「한겨레」 2008. 3. 13. “사실상 백수 300만 넘어.”
- Abma, J. 1991. “Alcohol use among young adults in 1988: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Unpublished report*,

-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Atkinson, J. S., Montoya, I. D., Whitsett, D. D., Bell, D. C., & C. W. Nagy.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distress, employment, and drug use over time in a sample of female welfare recipi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223-234.
- Axelsson, L., & G. Ejlertsson. 2002. "Self-report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young unemployed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 111 - 119.
- Bachman, J. G., O'Malley, P. M., & J. Johnston. 1978. Youth in transition, Vol 4, "Adolescence to adulthood-change and stability in the lives of young mean."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anks, M. H., & S. T. Evans. 1989. "Employment and training orientations as a function of gender, careers and labour markets." Occasional Series No 9. ESRC 16-19 Initiative, City University, London.
- Banks, M. H., & P. R. Jackson. 1982. "Unemployment and risk of minor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people. *Psychological Medicine*." 12: 789-798.
- Baron, S. W., & T. F. Hartnbagel. 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66-192.
- Brief, A. P., Konovsky, M. A., Goodwin, R., George, J. M., & K. Link. 1995. "Inferring the meaning of work from the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693-711.
- Catalano, R., Aldrete, E., Vega, W., Kolody, B., & S. Aguilar-Gaxiola. 2000. "Job loss and major depression among Mexican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477-487.

- Cobb, S., & S. V. Kasl. 1977. Termination: The consequences of job loss (Report No. 76-1261). Cincinnati, O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ehavioral and Motivational Factors Research.
- Creed, P. A., & S. R. Macintyre. 2001. "The relative effects of deprivation of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on the wellbeing of unemployed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 324-331.
- Dooley, D. 2003. "Under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mental health: Conceptualizing employment status as a continuu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9-20.
- Dooley, D., Catalano, R., & R. Hough. 1992. "Unemployment and alcohol disorder in 1910 and 1990: Drift versus social caus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5: 277-290.
- Dooley, D., & J. Prause. 1998. "Underemployment and alcohol abuse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669-680.
- Fryer, D. 1997.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central issues." *Journal of Adolescence*. 20: 333-342.
- Fryer, D. & R. Fagan. 2003. "Toward a critical community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89-96.
- Goldberg, D. P., Gater, R., Sartorius, N., Ustun, T. B., Piccinelli, M., Gureje, O., & C. Rutter. 1997. "The validity of two versions of the GHQ in the WHO study of mental illness in general health care." *Psychological Medicine*. 27: 191-197.

- Gurney, R. M. 1980.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205-213.
- Hammarstrom, A., & U. Janlert. 1997.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 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20: 293-305.
- Hammarstrom, A., Janlert U., & A. H. Winefield.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u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 Hannan, D. F., O'Riain, S., & C. T. Whelan. 1997. "Youth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Republic of Ireland." *Journal of Adolescence*. 20: 307-320.
- Hendry, L. B. 1989.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and peers on adolescent life styles and leisure styles." In the *Social World of Adolescents*, Hurrelmann, K. & Engel, U. (eds). New York: Walter de Gruyter.
- Hoare, N., & A. Machin. 2004. "Self-esteem, affectivity, and deprivation: Predictors of well-being in the unemployed." *This paper was first presented at the 19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 April, 2004 in Chicago.
- Hu, L. T., & P.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hoda, M. 1981. "Work, employment and unemployment: Values, theories,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6: 184-191.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del, D. B. 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235-285.
- Kanfer, R., Wanberg, C. R., & T. M. Kantrowitz.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37-855.
- Kieselbach, T. 2003. "Long-term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69 - 76.
- Murphy, G. C., & J. A. Athanasou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83-99.
- Patterson, L. J. 1997.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Patton, W. A., & P. Noller. 1984. "Unemployment and youth: A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6: 399-413.
- Prause, J., & D. Dooley. 1997. "Effect of underemployment on school-leavers'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0: 243-260.
- Reise, S. P., Widaman, K. F., & R. H. Pugh. 199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Two approaches for exploring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4: 552-566.
- Schaufeli, W. B. 1997.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Dutch findings." *Journal of Adolescence*. 20: 281-292.
- Taris, T. W. 2002.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9: 43-57.

- Taris, T. W., Bok, I. A., & D. G. Calje. 1998. "On the relation among job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Evidence for reciprocal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5: 157-167.
- Taris, T. W., Heesink, A. M., & J. A. Feij. 1995. "The Evaluation of Unemployment and Job-Searching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301-314.
- Werneke, U., Goldberg, D. P., Yalcin, I., & B. T. Ustun. 2000. "The s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30: 823-829.
- Winefield, A. H. 1997.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dolescence*. 20: 237-241.
- Winefield, A. H., & M. Tiggemann. 1989. "Job loss vs. failure to find work as psychological stressors in the young unemployed."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2: 79-85.
-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R. D. Goldney. 1993. *Growing up with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ts psychological impact*. London: Routledge.

**신희천**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과 아주심리상담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연구로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2008), "내현적 자기가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2007) 등이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논문공모에서 장재윤, 이지영과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장재윤**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조직심리학 박사).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학술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연구로 "Innovating the public sector: Integrating employee and organizational dynamics of innovation implementation"(JAP, 2008), "Turnover of highly educated R&D professionals: The role of pre-entry cognitive style, work values, and career orientation"(JOOP, 2008) 등이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논문공모에서 신희천, 이지영과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이지영**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직심리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성신여대에서 직장인의 건강심리, 진로상담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성신여대 직업심리연구팀과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조직연구의 새로운 렌즈, 긍정 조직학”(2007),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1년 후 대학생활 적응도 조사 보고서”(2007) 등이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논문공모에서 신희천, 장재윤과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2008. 3. 26. 접수; 2008. 9. 28. 채택]

